

아담 스미드와 現代經濟學

邊 衡 尹*

| <目次> | |
|--------------------|------------------------------|
| I. 序 言 | |
| II. 아담 스미드의 市場經濟 | |
| 1. 市場經濟의 調和 | 2. 케인즈革命과 新新古典學派의 均衡 의 世界 |
| 2. 市場經濟의 制度的 與件 | IV. 네오 케인지안의 擡頭와 古典學派의 復活 |
| III. 新古典學派의 均衡의 世界 | V. 結 言 |
| 1. 新古典學派의 均衡理論 | |

I. 序 言

1776年에 있어서의 아담 스미드의『國富論』의 出版과 함께 그 以前까지의 斷片의이고 記述의이었던 經濟問題에 대한 叙述 대신에 統一的이며 分析的인 하나의 科學體系로서의 經濟學이 最初로 確立되었다. 아담 스미드의『國富論』出版 200周年을 맞는 現時點에서 經濟學은 P.A. 사무엘슨의 表現을 빌린다면 「社會科學의 女王」(the queen of social science)의 地位를 確保하고 있으며 現代物理學의 精緻性에 比肩할만한 理論體系를 갖는데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經濟學派의 一角에서는 「이미 經濟學의 時代는 사라져버렸다」라는 悲觀論을 提起하고 있으며 특히 英國의 네오케인지안⁽¹⁾은 美國의 經濟學界에 의해서 主導되는 現代의 主流經濟學(이 經濟學을 P.A. 사무엘슨은 新古典學派綜合 또는 新經濟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J. 로빈슨은 이 經濟學을 主張하는 사람들을 新新古典學派라고 부르고 있다)에 대해서 激烈한 抵抗을 보이고 있다.

J. 숨페터는 그의『經濟分析의 歷史』에서 「分明히 어떤 問題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선 서로 關聯되어 있는 諸現象을 우리의 分析的 努力의 價值있는 對象으로 捕捉하여야만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 네오 케인지안은 J. 로빈슨, N. 칼도를 中心으로 하여 美國의 新新古典學派를 批判하는 立場에 서는 英國의 케임브리지學派를 말한다.

한다. 다시 말하면 分析的 努力에 一次的 資料를 供給하는 先分析의인 認識行爲가 必然的으로 分析的 努力에 先行한다」⁽²⁾고 말하고 이 先分析의인 認識行爲를 비전(vis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단 비전을 이렇게 解釋한다면 事實은 新新古典學派와 네오케인자안의 對立은 市場經濟에 대한 비전의 對立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新新古典學派에서는 市場經濟의 制度的 與件이 捨象되고, 未來에 대한 完全한洞察이 假定되어 오늘도 내일과 同一한 經濟循環이 되풀이 되는 定常狀態(stationary state)下에서의 市場力에 의한 調和의 存在與否가 分析의 主要 關心事이나, 新新古典學派를 批判하는 네오케인자안에서는 資本家와 勞動者의 두 對立되는 階級이 存在한다는 制度的 與件을 重視하며 時間의 不可逆性과 不確實性이 支配하는 歷史的 時間속에서 運營되는 市場經濟의 成長과 分配의 決定原理가 分析의 主要 關心事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市場經濟의 調和에 대한 비전과 그것의 制度的 與件에 대한 비전은 A. 스미드의 『國富論』에 함께 提示되어 있으며 『國富論』에 나타난 이兩 비전이 그후 각각 繼承發展되어 오늘날의 新新古典學派와 네오케인자안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 스미드의 制度的 與件에 대한 비전은 그후 D. 리카도에 의해서 繼承되어 資本主義下에서의 資本의 歷史的 蓄積過程과 階級間의 分配라는 主題下에서 一貫된 理論體系의 構成을 보았다.

다른 한편 市場經濟의 調和에 대한 비전은 T. 멜더스, J.S. 밀을 거쳐 新古典學派에 의해서 繼承發展되었다. 특히 新古典學派에 이르러서는 A. 스미드의 兩 비전中 制度的 與件에 대한 비전은 無益한 概念으로 捨象되고 個別의인 經濟主體의 行爲 특히 消費者的 選擇行爲에 重點을 둔 均衡理論에 의해서 A. 스미드의 市場經濟의 調和에 대한 비전이 하나의 嚴密한 理論體系로 完成되게 되었다.

II. A. 스미드의 市場經濟

1. 市場經濟의 調和

A. 스미드 以前의 初期經濟學者들도, 市場經濟의 核心은 個個人의 利己心을 推進力으로 한, 끊임없는 變化에 대한 圓滑한 適應을 통한 經濟의 進步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本格의in 經濟學의 知識史는 自由人の 自然的인 本能과 能力이 어떻게 經濟의 進步와 調和를 招來할 수 있는가를 論理的으로 說明하려는 A. 스미드의 努力과 함께 시작되었다.

(2) J.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1959, p. 41

물론 市場經濟의 메카니즘에 대한 描寫가 A. 스미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어떤 意味에서는 A. 스미드 以前의 R. 칸띠옹, A.R.J. 튜르고, F. 캐네 등이 經濟學의 先驅的 業績을 남겼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集計的 水準에서의 生產物의 循環과 分配메카니즘에 대한 最初의 科學的인 理解는 F. 캐네의 功績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自然的인 自由의 明白하고 單純한 制度」(the obvious and simple system of the natural liberty)下에서의 調和라는 大主題下에서 抽象的인 理論이 過去歷史의 概觀과 政策應用과 함께 統一的으로 分析된 最初의 理論體系라는 點에서 『國富論』은 그 以後의 市場經濟에 관한 모든 理論 및 思想의 出發點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A. 스미드에 의해서 icro소 特定한 運動法則과 獨自的인 慣性을 갖는 市場經濟라는 概念이 確立되었던 것이다.

『國富論』을 一貫하고 있는 中心主題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한 調和의 達成 즉 J. 숨페더의 表現을 빌리면 「各個人의 自由로운 相互作用을 통한 混沌이 아니라 論理的으로 決定되는 하나의 秩序있는 패턴의 結果」⁽³⁾이다. A. 스미드의 見解로는 經濟行為의 가장 重要한 要因은 「自己自身을 改善하려는 모든 사람의 制約받지 않는 恒常的인 努力」이다.

바로 이러한 動機 즉, 利己心은 資本家에 있어서는 利潤의 追求로 나타난다. A. 스미드에 의하면 「모든 個人은……그가 支配할 수 있는 모든 資本의 가장 有利한 雇傭을 發見하려고 努力하여 왔다」⁽⁴⁾ 이에 반해서 資本을 所有하지 않은 勞動者들은自身的 勞動의 가장 有利한 雇傭을 찾으려고 努力하게 된다. 資本家와 勞動者의 이와 같은 利己心의 自由로운追求로 인해서 資本과 勞動은 가장 生產的으로 雇傭되게 된다. 즉 A. 스미드의 말과 같이 「우리들이 우리들의 食事を 期待할 수 있는 것은 精肉業者나 釀造業者 또는 製菓業者の 慈悲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自己自身에 利益에 대한 關心에 의한 것이다」.⁽⁵⁾

資本과 勞動의 移動에 대한 障碍가 存在하지 않는 한 보다 큰 利潤의追求는 消費者的需要를 適切히 充足시킨다. 더우기 競爭의 過程은 非效率的인 生產者를 除去하여 生產을 가장 效率的인 方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生產物의 價格을 低廉하게 하며 生產物의 質이 向上되도록 한다. 즉 「각 生產者는 각 產業을 그것의 生產物이 最大의 價值를 갖도록 하게 함으로써 自己自身의 利益에만 關心을 기울이는데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그는 自己自身

(3) *Ibid.*, p. 185.

(4) A. Smith, *The Wealth of Nations*, Modern Library, 1937, p. 421

(5) *Ibid.*, p. 14

의 意圖한 바가 아닌 目的에 寄與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誘導된다. …… 그는 自己自身의 利益을 追求함으로써 自身이 真實로 社會의 利益을 增進시키려 하는 때 보다도 더욱 效率的으로 社會의 利益을 增進시킨다].⁽⁶⁾

私的인 利己心을 통해서 公益의 調和를 誘導하는 市場經濟에 대한 A. 스미드의 이러한 비전은 新古典學派의 立場에서는 市場邏輯을 통해서 資源이 最適配分된다는 命題로 解釋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M. 브로그는 經濟學者로서의 A. 스미드를 다음과 같이 評價하고 있다. 「A. 스미드 또는 어떤 다른 經濟學者를 評價함에 있어서 우리는 恒常, 純粹하게 分析的인 諸概念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優秀性과, 諸經濟關係의 本質的인 論理의 確固한 把握에 있어서의 優秀性을 區別해야 한다. 卓越한 分析的 技術이 반드시 卓越한 洞察力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그 逆도 반드시는 妥當하지 않다. 만약 分析的인 能力を 基準으로 評價한다면 A. 스미드는 18世紀 經濟學者중에서 가장 偉大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經濟過程의 本質에 대한 날카로운 洞察力으로 본다면 즉 理論的인 優雅性보다도 經濟에 대한 智慧로 본다면 18世紀만이 아니라 19世紀에 있어서 조차도 A. 스미드에 比肩할 만한 經濟學者는 存在하지 않는다」.⁽⁷⁾ 즉 M. 브로그는 一定한 前題下에서 特定命題가 導出됨을 보이는 理論의 技術的 面에서는 A. 스미드의 私的 利己心과 公益과의 調和에 관한 說明은 不充分하다고 하겠으나 그 調和에 대한 비전을 提示한 洞察力의 面에서는 卓越하다고 본 것이다.

市場經濟의 調和에 대한 비전과 함께 A. 스미드는 다음에서와 같이 價格 및 分配理論과 經濟發展論에서 또 하나의 비전인 市場經濟의 制度的 與件에 대한 비전을 提示하였다.

2. 市場經濟의 制度的 與件

A. 스미드의 가장 基本的인 分析概念의 하나는 社會階級의 概念이다. A. 스미드는 F. 캐네의 農民, 地主, 手工業者의 階級概念을 이어 받아 社會構成員을 經濟過程속에서의 地位와 機能에 따라 勞動者, 資本家 및 地主의 3階級으로 나누고 이 階級分化가 市場經濟의 가장 基本的인 與件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社會階級 가운데서 勞動者는 生存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分配分量을 賃金으로 支拂받아 이를 消費하며 資本家는 生產過程에서 創出되는 剩餘를 利潤의 形態로 獲得하여 資本蓄積을 行하며 地主階級은 蓄積에 利用되어야 할 剩餘로부터 抽出된 地代를 獲得하여 消費한다. 이러한 階級分化의 制度的 與件과 각 階級의 相異한 經濟的 機能에 대한 A. 스미드의 비전은 그의 價格 및 分配理論과 經濟發展論에서 核心的인

(6) *Ibid.*, p. 423

(7) M.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1965, p. 64

役割을 하고 있다. A. 스미드의 表現을 빌린다면 社會는 「세 개의 커다란 階級」(the three great orders)으로 構成되며 「모든 國家의 土地와 勞動의 年間純生產物은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세 개의 部分으로 自然的으로 分割된다. 즉 그것은 土地의 地代, 勞動의 賃金과 資本의 利潤으로 分割되며 이들은 各己 相異한 세 階級의 收入을 構成한다. ……(年間純生產物이) 國民의 각 階級間에 每年 分配되는 比率이 相異함에 따라 通常의인 또는 平均의인 價值는 每年 增加하거나 減少하거나 同一하게 된다」。⁽⁸⁾

이러한 A. 스미드의 制度的 與件에 대한 비전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선 그의 價格概念에서이다. A. 스미드는 우선 「市場價格」(market price)을 自然價格(natural price)과 區分하여 特定한 場所와 時點에서 形成되는 需要와 供給에 의해서 決定되는 價格을 市場價格이라고 하였으며 이 市場價格은 積立 없이 自然價格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했다.⁽⁹⁾ A. 스미드에 있어서는 이 短期的으로 積立 없이 變動하는 市場價格보다는 이 市場價格을 公正적으로 決定하는 自然價格을 重視하였으며 이 自然價格에서 그의 制度的 與件에 대한 비전이 잘 나타나고 있다. A. 스미드에 있어서 自然價格은 生產費와 一致하며 生產費는 利潤 賃金 및 地代로 構成된다. A. 스미드는 『國富論』의 第1卷 6章의 「商品價格의 構成要素에 관하여」에서 價值의 本質은 生產過程에 投入되는 勞動에 있다고 示唆하였다. 그러나 勞動만이 價值의 本質을 이루는 社會는 資本의 蓄積과 土地의 私有가 存在하지 않는 原始社會에 한하여 蓄積된 資本과 私有化된 土地가 生產에 參加하는 社會 즉 文明社會에 있어서는 賃金만이 아니라 利潤과 地代도 分配에 參加하고 生產費도 賃金, 利潤 및 地代로 構成된다고 한다. 즉 資本이 特定한 個人的手中에 蓄積됨에 따라 그들의 一部는 자연히 勤勉한 사람들이 勞動할 수 있도록 이들을 雇傭할 것이다. 이러한 狀態下에서는 生產物은 항상 労動者에게 歸屬되지는 않는다. 労動者는 그를 雇傭한 資本의 所有者와 함께 生產物을 分配받아야 한다.⁽¹⁰⁾ 또한 「어떤 나라의 土地가 모두 私的 所有物이 되면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地主들은 결코 씨뿌리지 않은 場所에서 收穫하기를 좋아하고 그 土地의 生產物에 대해서 조차 地代를 要求한다」.⁽¹¹⁾

A. 스미드는 이처럼 賃金, 利潤 및 地代가 生產費를 構成하며 이 生產費에 商品의 自然價格이 一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賃金과 利潤 및 地代는 各己 相異한 法則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보았다.

(8) A. Smith, *op. cit.*, p. 61.

(9) *Ibid.*, p. 58.

(10) *Ibid.*, p. 48 參照.

(11) *Ibid.*, p. 49.

그러나 賃金과 利潤 및 地代의 決定에 관한 A. 스미드의 說明은 多岐하여 그령개 明確하지는 않다.

그의 賃金理論에서는 生存費說(subsistence theory), 賃金基金說, 妥協說(bargaining theory), 生產力說 등의 여러 가지 要素를 찾아 볼 수 있으나 역시 그의 賃金理論의 中心은 賃金水準은 長期的으로는 生存費水準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生存費說과 勞動의 需要是 賃金基金의 크기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賃金基金說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說이 어떻게 結合되는가에 대한 그의 說明은 不明確하다. 다음에 A. 스미드는 資本에 대한 利潤率은 資本의 需要와 供給에 의해서 決定되는 利子率에 危險負擔率을 合한 水準으로 決定되어 地代는 價格에서 賃金 및 利潤을 뺀 것으로 決定된다고 보는 것 같다. 즉 地代는 賃金과 利潤과 달리 價格을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價格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으로 보았다.

A. 스미드의 價格 및 分配理論은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論理의 明確性과 一貫性을 缺如하기는 하였으나 市場經濟에 있어서의 階級分割이란 制度의 與件을 重視하고 있으며 自然價格을 構成하며 각 階級의 所得인 賃金, 利潤 및 地代가 各己相異한 原理에 의해서 決定되고 그 支出方式도 相異하다는 비전을 提示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A. 스미드의 價格 및 分配理論에, 있어서의 制度의 與件에 대한 비전은 D. 리카도에 의해서 繼承・發展되었다.

다음에 A. 스미드의 制度의 與件에 대한 비전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의 經濟發展論에서이다. A. 스미드는 經濟發展은 資本蓄積에 基因하며 資本蓄積은 資本家의 所得인 利潤에 그 源泉이 있다고 보았다. A. 스미드는 市場經濟는 資本家階級에 의해서 主導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생각은 經濟發展論에 잘 나타나 있다.

A. 스미드는 生產의 基本的인 要素는 勞動이며 「自然의 自由로운 膾物」과는 獨立的으로 단지 人間의 労動만이 富를 創出한다고 보았다. A. 스미드의 文明社會에서는 土地와 勞動외에 第3의 生產要素인 資本이 存在한다. A. 스미드는 이 資本의 本質은 先拂되는 賃金이라는데 있다고 보았다. 時間이 所要되는 生產活動에 있어서는 生產物이 完成되기 以前에 賃金이 支拂되어야 하므로 資本이 必要하게 된다. 따라서 資本은 資本家로 하여금 勞動을 支配할 수 있게 하는 手段이며 通常의으로 賃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스미드의 資本概念은 基本的으로 市場經濟에서의 生產은 勞動者를 雇傭할 수 있는 物的手段에 依存하는 資本家에 의해서 主導되어 勞動者는 受動的인 被雇傭者的 立場에 있다는 市場經濟의 制度의 與件에 대한 그의 비전을 反映하는 것이다.

A. 스미드에 있어서의 經濟發展은 결국 이러한 生產體系를 擴張해 나갈 수 있는 物的手段인 資本의 蓄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資本蓄積은 純生產物의 크기와 그 生產物의 階級間分配에 依存한다고 본다.

A. 스미드는 資本蓄積을 一次的으로 規定하는 純生產物의 크기를 決定하는 要因을 分析하기 위한 概念으로서 生產的勞動과 非生產的勞動을 區分한다. A. 스미드는 生產的勞動의 主要한 特徵으로서 生產의 直接的인 費用을 補償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費用을 超過하는 剩餘 또는 利潤을 發生시킬 수 있는 勞動과 販賣가 可能한 商品 즉 自體의 交換價值를 가질 수 있는 商品을 生產하는 勞動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非有形財인 서비스를 生產하는 勞動을 非生產的인 労動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A. 스미드의 生產的勞動과 非生產的勞動의 分類에서 우리는 그 瞬時性에도 不拘하고 現代的인 觀點에서 본다면 經濟發展은 生產의 社會的 性格에 크게 依存하며 더 나아가서는 經濟制度 그 自體와도 聯關係를 갖고 있음을 指摘하고 있는 A. 스미드의 洞察力を 찾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특히 네오케인자인이 指摘하듯이 無批判的으로 完全雇傭이나 成長 그 自體가 絶對的인 經濟政策命題로 받아 질수는 없으며 雇傭의 性格과 成長의 內容을 생각하여 볼 必要가 있다면 A. 스미드에서 貴重한 教訓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A. 스미드가 생각한 資本蓄積 따라서 經濟發展을 決定하는 두번쩨 要因은 階級間所得分配 특히 利潤量의 크기이다. A. 스미드의 經濟發展論에서는 資本은 先拂되는 賃金이며 人口의 增加는 賃金水準에 依存하므로 勞動力의 成長은 資本蓄積의 從屬變數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勞動力供給의 無限한 彈力性을 假定하는 한 賃金은 資本蓄積過程을 通過して 一定한 水準에 머무르며 勞動者의 所得部分은 消費財에 대한 需要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 資本家는 自身의 所得중 可能한 最大의 部分을 蓄積하므로 蓄積의 크기는 資本家의 所得인 利潤의 크기에 依存한다. 「自己自身의 私的인 利潤에 대한 考慮가 資本所有者가 그 投資對象을 決定하는 唯一한 動機인」⁽¹²⁾ 市場經濟에 있어서는 貯蓄과 投資는 同一視될 수 있으며 資本家는 利潤을 얻기 위해서 貯蓄과 投資를 行하려고 하는 欲求에 支配된다. 따라서 「國民의 모든個人의 資本은 1個人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 自身의 所得중에서 貯蓄하는 部分을 끊임없이 蓄積하며 그것을 資本에 附加함으로써 增加된다」.⁽¹³⁾

이러한 A. 스미드의 經濟發展論에서 찾아 볼 수 있는 重要한 事實은 經濟發展은 實物的인 純生產物의 크기와 그것의 階級間分配에 依存하며 市場經濟의 發展過程은 利潤을 指

(12) *Ibid.*, p. 355

(13) *Ibid.*, p. 347

標로 하여 움직이는 資本家階級의 意思決定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A. 스미드의 市場經濟의 發展過程에 대한 비전은 新古典學派의 均衡分析과는 물론 新古典學派의 經濟成長論이 想定하는 調和의 世界와는 分明히 對立的인 것이며 그脈絡은 D. 리카도의 傳統과 J.M. 케인즈의 世界를 綜合하려고 試圖하고 있는 네오케인즈의 經濟成長論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新古典學派의 均衡의 世界

1. 新古典學派의 均衡理論

『國富論』이 出版된지 약 100年 뒤 市場經濟의 調和에 대한 A. 스미드의 비전은 新古典學派에 의해서 本格的인 經濟學의 主題로 採擇되었다. 新古典學派는 A. 스미드의 制度的 與件에 대한 비전을 繼承 發展시킨 D. 리카도의 知的 遺產을 拒否하고 古典學派理論의 重要한 分析概念인 階級關係 대신에 모든 社會構成員은 政治的으로도 經濟的으로도 平等하게 創造되어 存立하며 이러한 個個人이 效用 또는 利潤과 같은 가장普遍的인 經濟目的을 原子論的으로 즉 各己 獨立的으로 極大化한다는 命題를 내세우고 그에 의거해서 市場麥肯尼즘을 解明하고자 試圖하였다. 新古典學派의 理論에서는 A. 스미드의 市場經濟의 調和에 대한 비전은 均衡이라는 概念으로 繼承되고 있다. 즉 新古典學派의 理論을 大膽하게 要約한다면 消費者的 嗜好와 生產技術 및 要素供給이 주어져 있다고 假定할 때 個別的인 各自의 效用과 利潤을 極大化하려고 하는 單純한 目的을 갖는 각 個別的인 經濟主體가 市場經濟의 唯一한 情報인 價格指標의 變化에 맞추어 適應을 繼續하면 각 個別的인 經濟主體의 目的인 效用과 利潤의 極大化가 同時에 이루어지는 最適의 狀態에 到達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狀態는 物理學의 力學概念에 比肩할 수 있는 各者의 主觀的 意思의 均衡을 實現하는 狀態이며 이 均衡狀態 下에서의 價格指標는 바로 각 個別的인 經濟主體의 主觀的 意思가 充足되는 諸條件를 反映하게 된다.

이와 같은 新古典學派의 理論의 重要한 特徵을 抽象化하여 表現한다면 다음의 세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階級關係를 市場經濟의 主要한 制度的 與件으로 보는 古典學派의 理論에 대해서 모든 社會構成員은 同等한 經濟的인 地位를 갖고 있으며 그들의 經濟行爲는 主觀的인 最適을 實現하려고 하는 共通된 動機에 의해서 表現될 수 있다고 보는 점이다. 둘째는 均衡의 因果的인 作用方向과 經濟要因에 대한 強調가 生產의 諸條件에 의해서 決定되는 實質費用에서 需要와 最終的인 消費로 옮겨진 점이다. 셋째는 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의 主題가 生產物의 階級間의 分配와 發展過程의 解明에서 交換의 領域을 構成하는相互關聯된 諸市場의 調整機能의 解明으로 옮겨진 점이다.

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新古典學派는 A. 스미드의 市場經濟의 調和에 대한 비전을 經濟學의 主題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新古典學派는 그것을 論理的으로 證明할 수 있는 分析道具와 理論構造 그 自體를 變革시킨 것은 말 할 나위도 없다.

2. 케인즈革命과 新新古典學派의 均衡의 世界

新古典學派의 理論은 1920年까지는 이미 經濟學의 主流로서의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新古典學派의 사람들은自身들의 理論的 結論에 의거해서 自由放任과 金本位制를 主張하였으며 競爭的인 私的 企業의 利潤追求는 經濟全體의 利益과 一致한다는 A. 스미드의 비전을 새로운 普遍的인 理論的 命題로서 採擇하였다. 또한 그들은 市場經濟에서는 均衡이 存在할 뿐 아니라 充分한 時間이 經過하면 모든 資源이 完全히 最適狀態에서 雇傭되는 均衡狀態만이 論理的으로 可能한 唯一한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즉 그들의 理論에서는 現實的으로는 多樣한 摩擦이 一特定 時點에서의 그리한 均衡의 到達을 妨害할지 모르나 市場經濟는 그러한 均衡으로 向하는 固有한 傾向을 갖고 있다고 假定되고 있으며 따라서 最善의 經濟政策은 어떤 種類의 干涉보다는 現實의 摩擦이 市場麥卡니즘에 의해서 自然的으로 調整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新古典學派의 理論的 命題는 반드시 當時의 現實과 一致하는 것은 아니었다. 第一次 世界大戰 以後 英國은 그 經濟力を 急速히 喪失해갔으며 失業과 낮은 利潤에 苦悶하고 있었으며 世界的으로는 金本位制가 動搖 崩壞하고 있었다. 이러한 市場經濟의 動機와 不安 속에서 1929年에 美國에서 시작된 大不況은 新古典學派의 【調和의 命題】를 否定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狀態 속에서 나타난 것이 J.M. 케인즈의 『一般理論』이다.

J.M. 케인즈는 그들의 先行者들처럼 (現在의 經濟學者들은) 아직도 生產要素의 雇傭量이 주어져 있으며 다른 適切한 情報가 어느 程度 確實하게 알려져 있는 制度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變化가 捨象될 수 있는 制度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市場經濟에서의 未來는 不確實한 것이며 新古典學派가 생각하는 각 個別의 經濟主體의 嚴密한 合理的인 行爲는 不可能하다는 事實을 強調하고 있다. 既存의 經濟學은 우리들은 未來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事實을 捨象하고 現在를 다루는 誤謬를 범하고 있다고 非難하고 있다.⁽¹⁴⁾ 말하자면 J.M. 케인즈는 市場經濟는 不確實한 未

(14) D. Moggridge ed., *The General Theory and After, Part II: Defence and Development, The Collected Writings of J.M. Keynes*, Vol. XIV, pp. 112—113 및 p. 115 參照.

來에 대한期待에 의거해서意思決定이 행해지는經濟이며時間의經過에 따라서끊임없이變化하는經濟임을強調함으로서 모든利用可能한資源의完全雇傭을必要條件으로 하는新古典學派의一義的인靜態均衡의調和觀에挑戰하였다.

이와같은J.M.케인즈의挑戰은처음에는革命的인것처럼보였다. 그러나『一般理論』以後의經濟學의發展過程은J.M.케인즈의理論을오히려新新古典學派의均衡理論으로吸收시켜가는過程이었다. 즉J.M.케인즈이후특히第2次世界大戰以後의케인즈理論에대한評價는流動性陷阱,貨幣貨金의硬直性,貨幣錯覺등과같은特殊한假定의導入에의해서만成立할수있는新古典學派理論의特殊理論이라는태로落着되어갔다. 따라서現代의主流經濟學즉新古典學派의theory에서는J.M.케인즈의不確實性속에不調和에대한비전보다는政府의總需要의調整에의해서「實際적으로거의完全雇傭에對應하는總產出高를實現시키는데成功한다면그以後에는古典學派의theory의世界가到來한다」⁽¹⁵⁾는調和에대한비전이強調되고있다. 즉케인즈理論을新古典學派의theory속에綜合한다고主張하는新新古典學派의theory에서는잘管理된케인지안政策에의해서貯蓄을充分히吸收할수있는投資水準을維持하여完全雇傭을達成한다면價格메커니즘에의해서最適의資源分配이達成될수있는新古典學派의調和의world가到來하며여기에서는new古典學派의theory의妥當性을갖는다고主張하고있는것이다.

오늘날新新古典學派의theory에서는觀測可能한經濟量간의規則的인關係에관한說明可能한theory의範疇를擴大하는한편不必要한假定으로부터諸命題를解放시켜論理的緻密性을마련하는論理的formism이追求되고있다. 따라서新新古典學派의theory에서는A.스미드의市場經濟의調和에대한비전은하나의絕對的인命題로看做되고있으며經濟理論의development은嚴密한論證과分析道具를必要로하게하는것이라고생각되고있다.

IV. 네오케인지안의 擡頭와 古典學派理論의 復活

네오케인지안은新新古典學派의사람들이new古典學派theory의深刻한theory의難點을看過하고있으며J.M.케인즈의theory를誤導하였다고批判하면서現代經濟學은실로危機의인狀況에처해있다고主張한다.

J.로빈슨의主張에의하면new古典學派는다음과같은theory의難點을갖고있다.⁽¹⁶⁾

(15) J.M. Keynes,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p. 378.

(16) J. Robinson, *Economic Heresies*, 1971. J. Robinson, "History versus Equilibrium," *Thames Polytechnic*, Autumn 1974 參照.

첫째로 新古典學派理論에 있어서의 完全競爭의 假定과 모든 經濟主體는 自身의 利益을 極大化한다는 假定은 相衝될 수 있다. 이러한 難點은 일찌기 收穫遞增과 完全競爭 사이의 틸 렘마라는 問題로 A. 마샬을 괴롭혔다. 그리고 P. 스라파는 「費用과 生產量 간의 關係」⁽¹⁷⁾라는 論文에서 收穫遞增이 新古典學派의 價格理論의 根本的인 問題點임을 指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J. 로빈슨은 『不完全競爭의 經濟學』을 著述하여 A.C. 피구의 靜態分析과 限界生產力說의 批判을 試圖하였으나 不完全競爭의 理論은 아직까지도 하나의 統一된 經濟理論으로서 安着되지 않은채 未解决의 課題로 남아있다.

둘째로 新古典學派의 均衡概念은 根本的으로 靜態的인 概念이며 動態的인 實際經濟를 다루는 데에는 無力할 뿐아니라 非現實的인 分析concept이다. 新古典學派의 均衡狀態는 모든 個別的인 經濟主體가 주어진 條件下에서 最適의 主觀的 意圖를 實現함으로서 그 어떤 意思決定의 變更도 慮起될 誘因의 存在하지 않는 無變化의 狀態이다. 이러한 均衡狀態에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行動이 어떤 結果를 招來할 것인가를 正確하게 知고 있다는假定이前提된다.

또한 이 均衡狀態는 이미 만들어진 財貨 또는 特定財貨를 生產하는 能力의 어떤 賦存狀態下에서 一集團의 個人們이 市場에서의 去來 再去來를 通해서 開始時點보다 바람직한 財貨의 配合을 選擇함으로서 하나의 經濟過程이 끝나는 狀態이다. 따라서 均衡狀態에 이르는 經濟過程 속에서의 變化는 論理的인 時間 속에서 慮起되는 하나의 假想的인 變化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와 같은 均衡狀態에 이르는 經濟過程을 歷史的인 過程으로 解釋한다면 均衡狀態에 到達한 今日에 이르기 以前의 時間 동안에는 不均衡狀態 속에서 實際의 去來와 再去來가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意味하며 今日의 均衡狀態의 實現을 妨害한 條件이 未來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理由는 存在하지 않는다.

네오케인자안이 強調하는 바에 의하면 J.M. 캐인즈는 新古典學派의 論理的인 均衡分析을 強力히 排除하고 있었다. J.M. 캐인즈는 모든 經濟過程은 歷史的인 時間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그 歷史的인 時間의 각 時點은 그 自體의 獨自的인 過去와 未來에 대한 期待를 갖는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現在의 實際的인 經濟條件 즉 所得 資本 雇傭 技術 등은 過去에 행하여진 意思決定의 結果이며 未來에 대한 期待는 不確實하다.

셋째로 新古典學派의 分配理論 즉 限界生產力說은 論理上의 循環論에 빠져있다. 資本의

(17) P. Sraffa, "Sulle relazioni fra costo e quantità prodotta," *Annali di Economica*, 1925.

이 論文은翌年인 1926년에 "The Laws of Returns under Competitive Conditions"로 *Economic Journal*誌에 翻譯되어掲載되었다.

異質性이라는 條件을 明示的으로 導入하여 限界生產力說에 의해서 巨視的인 所得分配를 다루려고 하는 경우 資本의 測定問題를 둘러싸고 利潤率의 決定을 위해서는 未知數인 利潤率을 既知의 量으로 假定하여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論理上의 循環論에 빠지게 된다. 이 問題를 에워싼 論爭은 資本論爭이라고 불리우며 그것은 아직까지 繼續되고 있다. 新古典學派에 대해서 以上과 같은 理論上의 諸難點을 指摘하고 있는 네오케인지안은 新古典學派의 理論 대신에 古典學派의 價格 및 分配理論과 未來의 不確實性을 重視하여 經濟過程을 歷史的인 時間 속에서 생각하는 케인즈의 巨視的인 觀點을 綜合한 새로운 理論의 構築을 試圖하고 있다.

네오케인지안을 評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理論的 成果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겠으나 그들의 觀點은 均衡理論을 核心으로 하는 新古典學派의 理論과 對立된다는 意味에서도 D. 리카도의 價格 및 分配理論을 復活시키려고 試圖하고 있다는 意味에서도 A. 스미드의 市場經濟의 調和에 대한 비전보다는 制度的 與件에 대한 비전에서 現實經濟를 把握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 言

現代經濟學은 J. 로빈슨의 表現을 빌린다면 「第2의 危機」를 맞고 있다. 그 危機는 既存理論으로는 說明되지 못하는 現實問題가 未解決의 狀態로 남겨져 있다는 事實」에 基因하는 것이겠으나 經濟理論 上으로는 新古典學派의 傳統에서 있는 現代의 主流經濟學에 대한 네오케인지안의 批判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現代經濟學에 있어서의 이러한 理論上의 對立은 單純한 分析道具의 差異에 앞서 經濟問題를 보는 비전의 差異에 基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現代的인 狀況 속에서 A. 스미드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면 現代經濟學에서 서로 對立하고 있는 兩學派의 비전은 A. 스미드의 『國富論』에 提示되어 있는 市場經濟의 調和에 대한 비전과 그 制度的 與件에 대한 비전으로 각 壓縮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A. 스미드의 制度的 與件에 대한 비전은 D. 리카도에 의해서 一次的인 理論의 完成을 보았다. 이에 대해서 A. 스미드의 市場經濟의 調和에 대한 비전은 新古典學派의 限界革命을 거쳐 現代의 主流經濟學 속에 살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케인즈理論을 어떻게 評價하며 그의 觀點을 어떻게 理論化하는가 하는 問題와 함께 이 A. 스미드의 兩비전을 어떻게 繼承하는가 하는 것이 아직도 現代經濟學에 있어서 未完成의 課題로 남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附 表

| | | |
|--------------------------------|-------------------------------------|-------------------------------------------------------------------------------------------------------------------------------------------------------------------------------------------------------------------------------------------------------------------------------------------------------------------------------------------------------------------------------------------------------------------------------------------------------------------------------------------------------------------------------------------------------|
| A. Marshall | <i>The Principles of Economics</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價値論 p.61 • 經營者(undertakers) p.745n • 生產性의 使用 p.65n, p.66 • 生活必須品(necessaries) p.98, p.87 • 資本의 定義 p.75, p.78, p.788n • 人 口 p.177n, p.184n • 定着法 (Settlement Law) p.187n • 分 業 p.240, p.246, p.253, p.256, p.262 • 自然價值 p.347 • 地 代 p.144n, p.167n, p.439n, p.932, p.833 • 貨 金 p.400, pp.507~8, p.551 p.557 • 奴隸勞動 p.561n, p.564n • 機械外 熟練勞動의 比較 p.570 • 利 潤 pp.609~10, p.613 |
| A.C. Pigou | <i>Economics of Welfare</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干涉 (government interference) p.128 • 勞動移動 pp.507~9 • 國 防 p.19 |
| J.M. Keynes | <i>General Theory</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生產理論 pp.352~3 • 利子率 p.368 |
| J.A. Schumpeter | <i>History of Economic Analysis</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節 約 p.639 • 進 步 p.269 • 資 本 pp.191~3, pp.236~7, pp.323~4, pp.634~5, p.642 • 分 配 pp.557~8, pp.567~8, p.654n • 分 業 pp.187~8 • 企 業 家 p.555 • 均 衡 p.308 • 所 得 p.628 • 收穫遞增 p.259 • 利 子 率 p.658, p.193, p.331, pp.333~4, p.647, pp.648~9, p.654, p.660, p.720 |
| J.A. Schumpeter (continued) | <i>History of Economic Analysis</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投 資 pp.191~3, pp.324~5 • 自由放任 p.172 • 人 口 論 p.191 • 獨 占 p.189, pp.264~5, p. 309 • 自然法 p.84 • 政治經濟學 p.38, p.186 • 利 潤 pp.190~91, p.268, p.331, pp.333~4 • 地 代 pp.190~91, pp.264~5 • 收穫遞減 p.191, p.194 • 貯 蓋 pp.191~3, pp.236~7, pp.324~5, p.389, p.630, pp.634~5, p.639, p.642, pp. 659~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價 值 60, p.667, p.723 pp.188~90, p.300, p.302, pp.307~11, p.82, pp.590~91, p.673n, p.912n, 1000n • 勞動理論 pp.188~9, pp.309~11, p.590 • 需要供給 p.482, p.600, p.601n • 貨 金 p.111, pp.189~90 p.268~70, p.654, pp.662~4, p.667n, p.668 |
| P.A. Samuelson | <i>Economics</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지 않는 손 p.41, pp.609~10, p.611n • 分業論 p.51 • 價值의 逆說 p.424, p.425a • 地代論 p.517, p.533 • 完全競爭均衡 p.607n • 獨占均衡 p.478 |
| | <i>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厚生經濟學 p.203 • 靜態均衡 p.313 |
| J.R. Hicks | <i>Capital and Growth</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成長論 p.33, pp.36~42, p.79, pp.133~4, p.210, p.238, p.273 |
| | <i>The Social Framework</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生產性 pp.23~4 • 消費와 投資 p.34 • 政府의 役割 p.150 |
| K.E. Boulding | <i>Economic Analysis</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厚生經濟學 p.8 • 分業 p.24, p.27 • 獨占斗自由競爭 p.677 • 國富論總評 p.884 |

〈討 論〉

金宗炫 教授*의 論評

우선 發表된 主題論文에 관연해서 한 두가지 論及을 하고 그 후에 스미드 經濟學의 現代的 意義를 몇가지 側面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國富論』에 이르러 經濟學이 政治學, 哲學 및 神學으로부터 分離되어 獨立科學으로 確立되고 그것을「根源」또는「出發點」으로 해서 그 후의 經濟學이 展開되었다고 하는 成教授의 指摘과 관연해서 『國富論』은 그 후의 經濟史學의 成立과 發達에도 상당한 影響을 미쳤다는 것을 指摘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經濟史學의 成立契機는 人類의 經濟生活의 歷史的 認識이 王朝史 中心에서 分離되어 그 自體가 獨自의 研究分野라는 認識이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바로 經濟學이 政治學, 哲學 및 神學等 餘他諸科學으로부터 獨立하게 된데에 對應한 것이다. 또한 스미드는 『國富論』에서 工業을 商業의 後裔로서의 工業 즉 都市工業 또는 特權的 商人支配의 工業과 農業의 後裔로서의 工業 즉 農村工業을 區別해서 國內市場에 뿐리 박은 農村工業을 重要視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스미드의 認識方法은 特權的 商人資本에서 보다도 農村工業을 基盤으로 하는 中產的 生產者層의 自由로운 成長 속에서 近代的 工業發展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후의 經濟史 認識方法의 先驅가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資本蓄積의 源泉에 관해서 보면 邊教授가 指摘하는 바와 같이 스미드는 그것을 資本家의 所得인 利潤에서 찾고 있다는 것은 明白하다. 그러나 스미드는 資本蓄積의 源泉을 資本家의 所得인 利潤에서 찾으면서도 勞動者의 所得인 賃金의 一部가 蓄積될 수 있는 可能性을 排除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미드의 時代는 매뉴팩추어 가 보다一般的이었던 時代로서 產業資本家가 하나의 階級으로서 完全히 確立되고 있지는 않았으며 아직도 小生產者 또는 勞動者가 產業資本家로서 上昇할 수 있는 可能性은 存在하고 있었다. 스미드의 生存費賃金의 概念은 반드시 明確한 것은 아니며 그는 오히려 高賃金政策을 擁護하는 立場에 서 있었다. 즉 그는 奴隸勞動이 오히려 가장 비싼 労動이며 高賃金이야 말로 勞動意慾을 높이고 生產性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資本蓄積이 잘 되는 經濟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즉 發展하는 經濟에서는 賃金이 上昇하고 利潤이 低下한다고 보고 있다. 스미드가 본 [社會]는 資本蓄積이 잘 되고 發展하는 資本主義社會였으며 이와 같은 社會를 絶對的으로 信賴한 그에게는 勞動者의 賃金은 스스로 높아질 것으로 認識되었고 分配의 問題가 深刻한 問題로서 認識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스미드의 認識은 現實的인 基盤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 產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관해서는 당시부터 이미 樂觀論的 見解와 悲觀論的 見解가 對立된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지마는 오늘날 學界에서 意見이 對立되고 있는 것은 19世紀 前半期에 광한 것이며 적어도 스미드가 살았던 18世紀 後半期에는 勞動者의 生活水準이 改善되었다는 것이一般的으로 認定되고 있다. 18世紀 後半期에는 分配問題가 現實的인 問題로서 深刻한 것으로 提起되지는 않았으며 그것이 現實的으로 重要한 問題로 提起된 것은 19世紀에 들어서였다. 그와 같은 現實이 리카도라든가 멜더스의 問題로서 認識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스미드經濟學의 現代的 意義는 어떠한 것인가? 이 問題를 위해서는 『國富論』에서 提起된 諸問題가 部分的으로 여러가지 側面에서 論議되어야 할련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스미드 經濟學을 部分的으로가 아니라 그의 經濟學 認識方法, 그의 經濟思想 및 그의 理論의 中心問題인 資本蓄積의 問題 등 스미드 經濟學의 全體와 關聯되는 몇가지 問題를 中心으로 言及하기로 한다.

첫째는 經濟學 認識方法의 問題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스미드는 哲學的 基盤위에서 制度的 與件을 前提로 해서 經濟問題를 認識했다. 스미드는 經濟問題를 現實的 基盤 위에서 經驗的으로 認識했으며 그 경우 經濟生活은 市民生活의 基本이며 經濟學은 社會科學으로서 市民生活의 基本原理를 認識하는 學問이었다. 그런데 經濟生活은 一定한 歷史的 所產이며 一定한 制度的 與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그것을 認識하는 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은 그와 같은 歷史的 및 制度的 要因도 自身의 體系內에 包含해서 認識할 必要가 있었다. 『國富論』은 바로 이와 같은 立場에서 이루어진 理論的 및 歷史的 認識의 體系였다. 『國富論』이 出版된 후 200年이 經過하고 資本主義도 高度의 發展段階에 到達한 오늘날 經濟學認識의 方法도 그에 對應한 變化를 하면서 經濟學이 發達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經濟現象이 상당한 程度까지 量的 關係로서 認識될 수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制度的 諸關係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邊教授가 指摘한 바와 같이 오늘날 「經濟學의 危機」 속에서 經濟現象의 數量的 認識만으로 經濟的 現實을 說明할 수는 없다고 하는 反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와 關聯해서 一部에서는 政治經濟學의 必要性이 強調되고 있다. 특히 制度的 및 歷史的 要因이 크게 作用하는 開發途上國經濟의 認識에서는 그러한 必要性은 보다 클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스미드의 經濟學 認識方法은 再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스미드의 經濟的 自由主義와 利己心의 問題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스미드는 自由競爭 속에서 이루어지는 經濟인의 利己心을 追求하기 위한 合理的 經濟行爲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스스로 調和를 이루면서 經濟를 發展시키는 原動力이 된다고 보고 그와 같은 利己心의 自然的 發露를 沮害하는 重商主義 體制下에서의 中世的 特權 및 獨占을 排擊했다. 한편 오늘날에 있어서는 資本主義가 高度의 發展을 이루한 先進工業國에 있어서나 또는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나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計劃이라든가 기타 方法에 의해서 經濟活動에 대한 政府의 干涉은 不可避해지고 반면에 스미드의 經濟的 自由主義는 크게 制約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自由經濟體制下에서의 市場機能의 重要性은一般的으로 強調되고 있으며 自由經濟의 原理는 살려야 할 것이다. 스미드의 自由主義 經濟思想의 現實的 基盤은 오늘날 크게 變質되고 있지만 그의 思想의 本質은 오늘날에도 充分히 含味될 必要가 있을 것이다. 또한 스미드의 「利己心」은 自由放縱 속에서 가 아니라 그 自體가 一定한 限界內에서 作用한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그 것은 近代市民社會의 道德 또는 社會正義의 태斗리 속에서 許容된 人間의 自然的 性情이며 이러한 市民的 道德 또는 社會正義에 어긋나는 無節制한 私利追求는 容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미드의 「利己心」은 막스 베버의 「資本主義精神」과 同質의인 것이며 賤民資本主義精神과는 異質의인 것이다. 企業家의 倫理性이 問題되고 있는 오늘날 스미드의 「利己心」은 正當하게 認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資本蓄積의 問題가 있다. 스미드로서는 資本蓄積은 經濟發展에서 核心의 問題였다. 왜냐하면 스미드로서는 國富의 增大는 勞動生產力의 增進에 依存하고 勞動生產力의 增進은 分業과 生產的 勞動者數의 增大에 依存하고 分業과 生產的 勞動者數의 增大는 一國의 資本額에 依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미드는 勤勉・節約을 強調하고 勤勉・節約하는 人間類型이 必要하다고 보았다. 스미드의 時代는 相對的으로 供給이 不足하여 生產力增大가 要請된 時代였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時代的 狀況 속에서 誕生한 스미드 經濟學은 티스트의 批判에도 불구하고 基本的으로 生產力理論이었던 것이다. 그 후의 資本主義의 發展過程에서 生產力의 키다란 增大가 이루어지고 供給不足은 供給過剩으로 轉換됨으로써 需要擴大가 要請되고 그러한 속에서 消費가 崇尚되었다. 특히 第2次大戰 以後의 工業化의 進展이라든가 經濟成長은 供給力의 大增加를 隨伴했으며 그것은 그만큼 需要擴大를 必要하게 했으며 그 속에서 消費가 美德이라고 主張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서의 資源波動은 從來의 그와 같은 思考에 어떠한 根本的反省을 하게 했다. 한편 經濟開發을 推進

하고 있는 開發途上國에서는 生產力擴大가 追求되는 속에서 資本不足이 制約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工業化過程에 있는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특히 資本蓄積의 問題는 가장 重要한 問題로서 認識되지 않을 수 없고 그 경우 節約이라든가 貯蓄이 美德이라고 強調되지 않을 수 없다. 스미드가 強調한 勤儉・節約하는 人間類型의 必要性은 오늘날의 經濟社會에서도 크다.

『國富論』이 出版된지 2世紀가 經過했고 그동안 經濟社會는 키다란 發展과 變化를 했다. 스미드 經濟學의 現代的 意義를 考察함에 있어서 저간의 歷史過程을 無視하고 스미드 經濟學을 便利한 대로 直線的으로 現代의 經濟現象에 適用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意味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歷史性을 充分히 考慮하면서 考察한다면 『國富論』은 200年 후의 오늘날에도 再檢討되고 再評價되어야 할 古典인 것이다.

沈相弼 教授*의 論評

1. 經濟現象의 分析에 대한 『國富論』의 기여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人間의 勞動力을 富의 源泉으로 보았다던가, 資本蓄積과 生產性의 向上의 문제라던가 또는 分業의 문제, 그리고 價值論의 試圖등 확실히 『國富論』은 現代經濟學의 基초를 이루고 있으며, 이 점은 主題發表에 상세히 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제분석의 思想의 背景으로 되고 있는 自由主義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미드의 自由主義는 이른바 經濟的 個人主義→經濟的 自由主義→自由貿易主義로 認識되고 있다. 그런데 『國富論』과 특히 『道德感情論』의 첫 페이지부터 흐르고 있는 그의 思想은 個人的 自由와 平等인 듯하다. 그는當時의 產業社會의 擡頭의 필수조건으로서 個人的 自由를 들고 있으며, 이는 그의 『道德感情論』에서 소위 自然權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自然權→自由→平等思想은 이미 무소에 의하여, 그리고 프랑스 革命을 前後하여 유럽을 휩쓸었던 思潮이며, 이것을 아담 스미드는 經濟發展의 필수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個人的 自由·平等은 近代的 產業資本主義社會의 基초라고 믿으며 사실상 최소한 유럽에서는 그러하였다.

2. 『國富論』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소위 「自然的 經路」로 번역되는 그의 經濟發展論에 관한 것이다. 經濟發展은 우리나라의 當面課題이기도 하며 그의 發展

* 弘益大學校 教授

論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그는 소위 自然的 經路論을 펴면서 經濟를 간접하지 만 않으면 農業에서 資本이 형성되어 그 資本이 農業에 投資되어 農業發展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農業에서의 收益性이 체감함에 따라 資本이 工業에 投入, 그리고 다음에는 國際貿易으로 投資가 이동한다는 說로서 스미드는 모든 경제가 이런 經路를 밟으면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論理展開는 다분히 社會哲學者的 성격을 띠면서 또한 經濟社會의 变遷을 설명함에 있어서 너무 단순한 감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農業의 主要性을 輕視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의 經濟學이 土地에서 富의 원천을 찾는 깨네의 重農學派보다 工業의 우월성을 강조함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하였지만 결코 그는 農業이 없는 工業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있다. 이제 工業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점, 즉 農業의 重要性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食糧難을 겪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趙誠煥 教授*의 論評

첫째, 韓國經濟와 관련된 아담 스미드의 『國富論』의 意義에 대하여 成教授가 제기한 문제점은 비록 미리 준비된 油印物에는 없었으나 오전과 오후의 論題를 연결시켜 주는 核心的인 課題가 아닐 수 없다. 이 問題에 대한 보다 本格的인 討議가 進行되기를 희망한다.

둘째, 本人의 專攻은 「經濟發展」 分野로서 아담 스미드의 『國富論』은 古典 이상의 의의를 가진다. 과거 20餘年間 유행되어 온 後進國 經濟發展 過程에 관한 새로운 學說들이 제기되었으나 사실 좀 더 깊이 따져 보면 결국 아담 스미드의 『國富論』에 그 根幹을 두게 된다.

『國富論』의 核心은 經濟發展의 性格과 原因의 分析이 아닐 수 없다. 國富(즉 오늘의 國民所得)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要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곧 『國富論』의 제목이기 때문이다. 비록 『國富論』의 對象과 內容은 빵대 하지만 題目을 「經濟發展의 理論과 實際」라고 고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이다. 즉

1. 아담 스미드는 처음으로 總生產과 구별되는 1人當 生產을 經濟發展의 指標로 삼았고 그의 「國富」의 概念도 오늘날의 附加價值 所得의 概念과 아주 가깝다.
2. 經濟發展의 原因을 分業을 통한 勞動의 質의增加, 能率의 勞動人口의 比率의 increase 와 資本形成에서 찾아보고자 한 것은 극히 近代的인 思考가 아닐 수 없다.

* 西江大學校 教授

3. 사실, 어떤 學者에 의하면 『國富論』第1卷의 價值 및 分配理論은 交換經濟에 있어서 分業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고 第2卷의 貨幣 및 信用의 理論은 資本蓄積의 分析에 필요한 事前準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人口增加의 問題 역시 이미 아담 스미드에 의하여 연구되었고 人口增加를 전과적으로 是 繁榮의 表示로 보고 資本蓄積과 人口增加의 關係를 구명하고자 한 것등은 역시 오늘의 人口問題 分析에도 教示하는 바 적지 않다.
5. 아담 스미드는 分業의 정도는 市場의 규모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유명한 命題를 통하여 「規模의 經濟」를 처음으로 제시함으로서 經濟發展 分析에 유익한 概念을 설정했다.
6. 오늘날 유행되고 있는 人的資本(human capital)의 개념 역시 아담 스미드는 『國富論』第2卷 중에서 (division of stock) 이미 취급했다. 즉 教育과 訓練에 관한 지출은 固定資本의 하나의 형태라는 점을 밝혔다.
7. 아담 스미드는 後進國의 國際交易 理論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다. 外國과의 交易이 없었던 지역이 外國交易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遊休 生產要素(자원)을 이용하여 剩餘生產物을 輸出하게 되며 확대되는 市場을 통하여 分業이 더욱 더 발달되어 經濟가 성장한다는 이론바 vent for surplus의 이론을 제창하였다. 카나다나 東南亞의 經濟發展의 연구에 아담 스미드의 vent for surplus 模型이 이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아담 스미드는 經濟發展 理論에 독자적인貢獻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한 학자로서 그의 저서 『國富論』은 古典이상의 現代的 教材로 이 분야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째, 邊教授의 글은 신로 「비전」에 넘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市場經濟의 調和에 대한 비전을 現代 經濟學이 계승한 것으로 均衡狀態, 完全競爭 등을 지적하고 市場經濟의 制度의 與件에 대한 비전으로 社會階級, 所得分配, 經濟發展 등의 분야를 지적하였는데 문제는 이들 비전이 分析對象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인지 또는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假定條件의 現實性의 차이에 따라 갈라지는지가 분명치 못하다. 오늘날 新新古典學派의 입장에서 보면(물론 本人도 이 學說에 의하여 洗腦되었지만) 두개의 비전의 구분은 模型을 세우고 模型의 內容을 時間과 空間에 걸쳐 specification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지 分析對象의 選定如何에 左右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 新新古典學派가 社會階級에 따라 달라지는 저축 성향의 차이를 중요시하지 않은 이유는 美國社會에서 兩分되는 階級對立이 뚜렷하지 않다는 現實性에 관한 判断에서라고도 볼 수 있다.